

# 196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과 미술에 나타난 색

A Study on the Colors Minimalism Fashion and Fine Arts in 1960s

주저자 : 이윤경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겸임교수

**Lee yoon-kyung**

**Dept. Textile and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 1. 서론

## 2. 미니멀리즘 미술에 나타난 색

2-1. 미니멀리즘의 발생 배경

2-2. 1960년대 미니멀리즘 미술 작품에 나타난 색

## 3.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색

3-1. 1960년대 미니멀 스타일 경향

3-2.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앙드레 쿠레쥬 (Andre Courrèges) 그리고 색

## 4. 미니멀리즘 미술과 패션 나타난 색 비교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다양한 미술 사조가 등장했던 1960년대는 현대 패션에 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개념 아래 전개된 미술 사조로서 형태와 색의 사용에 있어 극단적인 절제를 표명하고 있다.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니멀리즘의 특성이 복식에 표현된 형태적 양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니멀리즘에 관한 색의 사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미국의 산업화와 맞물려 등장한 미니멀리즘이 그 어휘에서 내포하고 있는 간결하고 절제된 형 이외에 색에 있어서도 미니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색의 사용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960년대 로버트 모리스, 도널드 저드 작품은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쥬, 피에르 카르댕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색상의 색상 대비와 유사한 색상의 유사대비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 주제어

미니멀리즘, 색, 1960년대

### Abstract

Various fine arts trends appeared in 1960s and their

influence still exists to 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the minimalism, appeared this period, is a fine art trend pursuing extreme restraint in shape and color use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an artist. The previous minimalism study in fashion focuses on the expression of minimalism on clothes through shape pattern. However, study on the use of color related to minimalism is rare.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inimalism, appeared with conjunction with industrialization of US, showing the minimal characteristics in color as well as the simple restrained shapes included in the vocabulary of minimalism and to analyze the color use. In the color contrast, works of 1960s fine artists, Robert Morris and Donald Judd, and Pierre Cardin showed both strong color comparison and similar color comparison in their works.

### Keyword

minimalism, color, 1960s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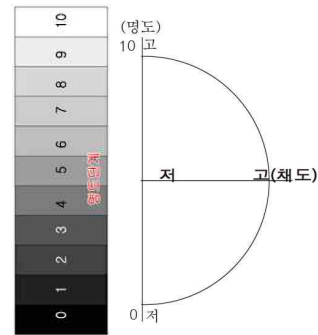
당 시대의 문화전반이 그렇듯이 미술 역시 그 시대의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주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다양한 미술 사조가 등장했던 1960년대에 등장한 다양한 미술사조들은 현대 패션에 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개념 아래 전개된 미술 사조로서 형태와 색의 사용에 있어 극단적인 절제를 표명하고 있다.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니멀리즘의 특성이 복식에 표현된 형태적 양식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니멀리즘에 관한 색의 사용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미국의 산업화와 맞물려 등장한 미니멀리즘이 그 의미에서 내포하고 있는 간결하고 절제된 의미가 형 이외에 색에 있어서도 미니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색의 사용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색의 사용에 있어 미술과 패션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경향과 색의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실제 작품을 통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복식사 및 미술사 관련 서적과

작품집을 바탕으로 패션과 미술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미술과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 패션과 미니멀 아트에 나타난 색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색 분석은 모두 도서로 출판된 출판물만으로 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니멀리즘 패션은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과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èges)의 작품에서의 색을 분석하였고, 미니멀 아트에 나타난 색은 1960년대 미니멀리즘에 대표되는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작품은 모리스를 제외하고 각각 20점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판을 출판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모리스의 작품은 출판물에서 수집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모리스의 작품은 9점으로 한정하여 이에 나타난 색상을 추출하였다. 작품은 책으로 출판된 상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 이름과 색 번호는 PANTONE COLOR를 활용하였으며, 그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색 분석은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색상은 먼셀의 표색계(Munsell System)를 바탕으로 적(R), 황(Y), 녹색(G), 청(B), 자(P)의 5개의 기본색과 무채색(White/Black)으로 구분하였다. 명도와 채도의 색 단계는 먼셀의 색 단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명도는 0부터 1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고명도로 갈수록 10에 가까워진다[그림1]1). 채도는 먼셀의 채도 색 단계인 14단계를 저(4), 중(5), 고(4)로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니멀리즘으로 대변되는 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주요색과 사용된 색 배합(color combination)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명도, 채도 구성도

## 2. 미니멀리즘 미술에 나타난 색

### 2.1. 미니멀리즘의 발생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과학적으로 최첨단의 기술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면에서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인 반면 유럽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예술가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 되었고, 미국은 한층 발전된 새로운 유럽의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미국은 현대 미술의 진원지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계문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조형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2) 이러한 배경 하에 현대 미술에 있어서 미니멀 아트는 문화적으로 2차 대전 후 유럽의 새로운 전위미술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럽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만나 미국적인 미술로 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니멀아트의 여러 명칭 중 'Cool Art'의 경우 '차갑다' 또는 '춥다'라는 형용사로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무관심, 엄격함, 합리성, 비인격성, 금욕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예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인 의미의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Cool Art'는 날카로운 윤곽이나 형식 그리고 반복적인 구조와 단위로 이루어졌다.4) 바바라 루이스(Barbara Rose)는 예술가들의 에세이에서 출발하지

1) 고지한 (2000). 요하네스 잇텐의 색채론, 서울: 상미사, p81.

검색일: 2010. 04. 10,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dada323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http://cafe.naver.com/dada323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

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변지연, 이순홍(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4권 제3호, p.429.

3) *Ibid*, p.430

4) Kenneth Baker (김수기 역) (1993). 미니멀리즘, 서울: 열화당, p. 25.

않은 단어 중에 하나인 A.B.C 아트라고 일컬어지는 미니멀리즘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와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작품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명칭이었다고 강조했다[그림2,3].<sup>5)6)7)</sup>

미니멀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 도널드 저드는 1965년 무제(untitled)라는 제목으로 철판위에 광택제를 입힌 오브제를 선보였다. 이것은 실제 공간은 본질적으로 평평한 표면에 페인트된 것보다 매우 힘이 있고 특별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형태는 1966년 리하르트 볼하임이 발표한 「미니멀 아트 minimal Art」라는 에세이를 통해서였으며, 그는 도널드 저드나 로버트 모리스가 작업했던 '원래의' 작품들을 조립하는 형태의 미술을 '미술 내용'의 최소화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sup>8)</sup>



## 2.2. 1960년대 미니멀리즘 미술 작품에 나타난 색

### 2.2.1.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모리스의 조각은 폐쇄적이고, 텅 빈 부피와 같다.<sup>9)</sup> 1963년 회색 칠을 한 합판으로 구축된 로버트 모리스의 전시는 조각처럼 보였지만 조각과는 좀 색다른 것이었다. 1961년 이래 무용수들을 위한 퍼포먼

스 소도구로 만들어진 오브제들을 갤러리 안에 전시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좌대도 없었고 한 작품을 감싸주는 순수시각성도 없어서 형태들은 주위 환경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작품이 결과적으로 미니멀리즘의 도래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였다.

1965년과 66년 사이에 다층적이고, 개별적이며 동일하고, 규칙적인 직사각형이나 입방체 또는 약간 경사진 입방체 요소들을 이용하여 네 부분으로 구성된 조각들을 많이 제작했다. 모리스의 작품의 오브제들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재료들 그 자체였으며 전혀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거울로 된 입방체들은 계슈탈트 형태가 배경의 우연성과 관람의 현상학에 좌우되어, 관찰과 기대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모리스만의 색깔이 드러난다. 즉, 작품에서 관계를 떼어내, 그것을 공간, 빛, 그리고 관람자의 시각장의 기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0)</sup>

미니멀리즘을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상들은 미적 환희의 공간을 쳐들어가는 침입자로 의도된 것이며, 더 이상 미술 작품을 그것이 우연적으로 의존하는 시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같지 않았다.<sup>11)</sup> 모리스의 작품은 규모, 재료, 비율과 배치 요소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존의 조각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sup>12)</sup> 모리스의 작품은 흑백사진으로 촬영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작품에는 색상 선택에 있어서 한정적이었다. 주로 회색과 흰색 계열의 색상이 그의 작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흑백사진으로 촬영된 사진도 의미있게 다가온다.

모리스의 작품에 사용된 색들을 살펴보면 무채색 계열의 화이트와 그레이계열의 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리스의 작품에는 white cap, silver birch, white asparagus, silver, moonbeam, paloma의 색이 사용되었다.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넘지 않는 굉장히 한정적인 색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도 차이도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색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1]<sup>13)</sup>.

5)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D.Buchloh (2004). art since 1900. NewYork: Thames & Hudson, p.494.

6) Thomas Kellein (2002). DONALD JUDD, New York: Distributed Art Publishers, Inc., p.117.

7) Ann Goldstein(2004) A Minimal Future? Art as Object 1958-1968, Los Angeles: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8) Kenneth Baker (김수기 역) (1993). *op.cit.*, p.17.

9) David Batchelor (정무정 역) (2003). 미니멀리즘, 서울: 열화당, p.39.

10) *Ibid.*, p.39.

11) Tomas Crow (조주연 역) (2007). 60년대 미술, 서울: 현실문화, p.192.

12) Ann Goldstein(2004). *op.cit.*, p.302.

13) [표1] 연구자 작성

[표 1]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에 사용된 색

	Red			Blue			Yellow			Green			Purple			W / B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고 10																
9																●
8																●
7																●
6																●
5																●
4																●
3																
2																
1																
저 0																

### 2.2.2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모리스의 작품에 대해 저드는 형상이나 구성과 같은 예술에서 본질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외관은 잊혀지고 있으며 모리스의 작업은 예술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sup>14)</sup> 1964년 저드는 뉴욕의 갤러리에 최초의 삼차원적 '오브제' 작품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페이팅도 조각도 아닌 철판 구조물들을 선보였다. 철판구조물들은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나온 듯 한 형태로 갤러리 바닥에 전시되었다. 육면체의 중앙에 홀이 파진형태나 육면체를 반복적인 동일한 형태로 늘어놓은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물들은 1960년대 초반기에는 눈에 띄게 등장하는 색은 red orange, fiesta, mandarin orange와 같은 레드 계열의 색이 등장한다. 이와 함께 철재의 색 위에 색을 입히지 않은 형태로 제작된 구조물의 경우 jadeite, sedona sage와 같은 그레이 계열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고 채도의 선명한 색상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크게 레드 계열(red orange, burnt orange, fiesta, harvest pumpkin, spicy orange, red clay, mandarin orange, mandarin red), 블랙에서 그레이 계열(ebony, wren, sedona sage, caviar, jadeite, green milieu)가 사용되었으며, 블루(mazarine blue, blue ashes, whter sky, canal blue, delft), 옐로우(old gold, remon chrome), 그린(bright lime green)이 포인트로 사용되거나 다른색과 보색으로 사용되었다. 저드의 작품에

14) *Ibid*, p.302.

사용된 색을 명도와 채도표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15)</sup>.

[표 2] 도널드 저드의 작품에 사용된 색

	R			B			Y			G			P			W / B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고 10																
9						●									●	
8		●	●													●
7																●
6																
5																
4																
3																
2																
1																
저 0																

## 3.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색

### 3.1. 1960년대 미니멀 패션 스타일 경향

1960년대 문화 전반에 우주비행이 스며들었으며, 패션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피에르 카르맹은 우주탐사에 매료되어 우주 비행사 에드 화이트 소령이 우주 공간에서 내딛은 첫 걸음을 1965년 <코스모스Cosmos>컬렉션으로 이어갔다. 이러한 실용적인 유니섹스 의상은 몸에 꼭 맞는 꼴이 진 스웨터와 타이츠, 혹은 바지 위에 걸치는 튜닉이나 피나포어(pinafore)<sup>16)</sup>, 뽀족한 캡과 펠트로 만든 돔 형태의 모자가 우주인 룩을 완성했다. 이것은 패션성과 편안한 활동성을 결합한 기능적인 디자인이었으며, 온 가족인 착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니 피나포어 드레스는 그것의 모방품에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대량으로 소비하기는 너무나 진보적인 룩

15) [표2] 연구자 작성

16) 피나포어(pinafore)는 가슴 바대가 달린 에이프런, 소매 없는 긴소복을 지칭한다.

이었다.17)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소형화(Minitunzation)의 대부분은 편리함에 비교하여 의류에 대한 패션과 일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1960년 중반에서 후반의 미니스커트에서 잘 나타난다.18) 인형 같은 소녀의상이 유행하였던 이 시대에는 작은 사이즈의 발랄한 미니원피스도 함께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신축성 있는 나일론과 실크로 만든 원피스 보디수트 <캡슐라 Capsulas>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타이즈는 무릎위로 짧게 올라간 미니스커트와 함께 착용되었으며 환상적인 패턴이 들어간 타이즈도 함께 유행하였다. 비달 사순(Vidal Sassoon)이 낸시 퀴안(Nancy Kwan)을 통해 처음 소개한 기하학적 단발머리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헤어 스타일이 되었다. 레슬리 혼비("Twiggy"로 불리움)는 모즈 패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소년 같은 몸매와 옆 가르마를 탄 소년 같은 헤어스타일, 요정 같은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다.19)

### 3.2.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èges) 그리고 색

#### 3.2.1.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파리 쿠튀르계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은 피에르 카르댕은 1950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으며, 1957년에는 강하고 정돈된 디자인의 컬렉션으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테일러로 일했던 카르댕은 상상력에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넣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비대칭 목선, 가리비 모양 장식과 등글게 말린 가장자리 처리, 얼굴을 감싸는 거대한 칼라 같은 그의 대표적 디자인은 각 계절마다 그 분위기에 맞추어 변형되었다.20)

1966년 카르댕의 위력적인 피나포어 드레스는 소모사로 만들었으며 날씬한 폴로넥 스웨터 위에 입었다. 돔 모양의 복숭아색 벨트와 헬멧과 앞코가 네모나고 굽이 낮은 신발이 미래주의 룩을 완성했다. 그는 도쿄에서 인형처럼 생긴 자그마한 체구의 모델 마쓰모토 히로코를 파리로 데려와 모델로 기용하고 뛰어난 디자인을 히로코에게 입혔으며, 검은색과 선명한 색을 결합한 팝아트와 옵아트를 프린트한 시프트

드레스를 시리즈로 디자인했다. 카르댕은 곱게 빗어 올린 머리 위에 사각형의 필박스 모자를 얹어 기하학적인 룩을 강조했다.21) 카르댕은 1960년대의 짧은 스커트 밑에 겨울에는 원색 계열의 색상이 있는 두꺼운 타이즈, 여름에는 촘촘히 짠 흰색이나 문양이 있는 타이즈를 입혀 살색 다리가 노출되는 것을 꺼렸던 최초의 디자이너였으며, 대담한 허벅지 길이의 부츠를 소개하고 검은색 스웨터와 타이즈, 머리에 꼭 맞는 모자를 매치해 주된 의상을 돋보이게 했다.

2004년 2월 이태리 밀라노 코르소 코모(corso como) 갤러리에서 피에르 카르댕의 1960년대 의상이 전시<LA MODA VINTAGE RADDOPPIA>되었다[그림4,5]22). 이때 전시된 의상은 1960년 당시 카르댕의 디자인의 경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카르댕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슬림한 라인을 이용하였고 색상은 Pop Art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특징을 보였다[그림 6,7]23). 이 전시에 전시된 작품에 사용된 색을 살펴보면 팝아트에 빈번히 등장하는 색상이 빈번히 등장한 색상인 aura red, cadmium green, caviar, frost gray, evergreen, flame orange, gloxinia, right rose가 서로 대비되면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4]  
2004, 피에르 카르댕



[그림5]  
2004, 피에르 카르댕



17)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 역) (1999),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187.

18) 변지연, 이순홍(1996). *op.cit.*, p.434

19)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 역) (1999), *op.cit.*, p.205.

20) *Ibid.*, p.184.

21) *Ibid.*, p.185.

22) 연구자 직접 촬영.

23) Elisabeth Langle(2005) Pierre Cardin fifty years of fashion and design, New York: The Vendome Press.



[그림6] 1960년대 피에르 카르 맹 작품	[그림7] 1960년대 피에르 카르 맹 작품
--------------------------------	--------------------------------

1960년대 제작된 피에르 카르맹의 의상은 red, green, blue, yellow의 원색과 black의 대비효과 또는 블랙에서 화이트로의 그라데이션 효과로 gray를 이용하거나, coral blush, sky blue, elderberry, pale marigold와 같은 파스텔 톤을 이용한 작품들이 빈번히 등장하였다. 아래 [표 3]은 1960년대 카르맹의 작품에 사용된 색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sup>24)</sup>.

[표 3] 피에르 카르맹의 작품에 사용된 색

	R			B			Y			G			P			W / B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고 10				●												●
9																●
8									●				●	●		●
7								●			●					
6	●					●								●	●	
5														●		●
4	●	●		●							●					●
3				●	●	●				●	●				●	●
2																●
1				●	●		●									●
저 0																●

### 3.2.2. 앙드레 꾸레쥬(Andre Courrèges)

앙드레 꾸레쥬의 디자인에서 색상은 꾸레쥬 자신의 정신계와 바깥세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때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던 그는 상륙하는 미국의 공군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하늘빛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군복에서 영감을 얻는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사용된 색을 빛의 발현인 흰색, 우주의 발현인 창공 빛 푸른색 그리고 달을 반영하는 은색으로 요약했다.<sup>25)</sup> 그러나 꾸레쥬가 사용

하는 색은 흰색을 칠한 벽이 있는 집들, 하얀 벽을 마주보고 게임을 하는 하얀 옷을 입은 펠로타 경기 선수들을 연상 시킨다. 꾸레쥬의 말처럼 석회를 바른 빛바랜 똑같은 길과 똑같은 인도,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스페인의 남쪽 마을을 연상 시킨다.<sup>26)</sup> 60년대 말에 개발된 새로운 표백기술은 직물을 더욱 희고 반짝이는데 햇살을 받으면 옅은 자주 빛 형광을 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꾸레쥬는 언제나 시각적 백색이라고 명명하는 흰색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는 채택하고자 원할 때 진짜 흰색을 얻을 수 있지만, 두꺼운 검은 소재와 사람 몸의 베이지 색 피부에는 이 색들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의 옷에 푸르스름한 백색을 정말로 사용하길 원했다. 이러한 그의 꿈은 화학 섬유와 화학 소재인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실현될 수 있었다. 또한 꾸레쥬는 1960년대에 열린 우주 시대가 흰색과 은색을 60년대의 유행색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 60년대에 사진이나 영화, 디자인, 실내 장식에서 흰색은 가장 각광 받는 색이었다. 꾸레쥬 역시 흰색을 가장 청결하고 순수한 색으로 꼽았다. 이러한 꾸레쥬의 작품에 톨랑 바르뜨는 “백색,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문구를 달았다.<sup>27)</sup> 실제 1960년대와 70년대 꾸레쥬의 작품에 사용된 색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흰색의 사용이 많았다. 같은 흰색이라도 소재에 따라 색상의 차이는 약간씩 나타났다[그림8,9]<sup>28)</sup>.



[그림8]  
1960년대 앙드레 꾸레쥬 작품



[그림9]  
1960년대 앙드레 꾸레쥬 작품

Andre Courrèges, 부산: 노라노. p.14.

26) *Ibid*, p.12.

27) 1967년 9월호 마리 끌레르

28) 박기완(2002). *op.cit.*,

24) [표3]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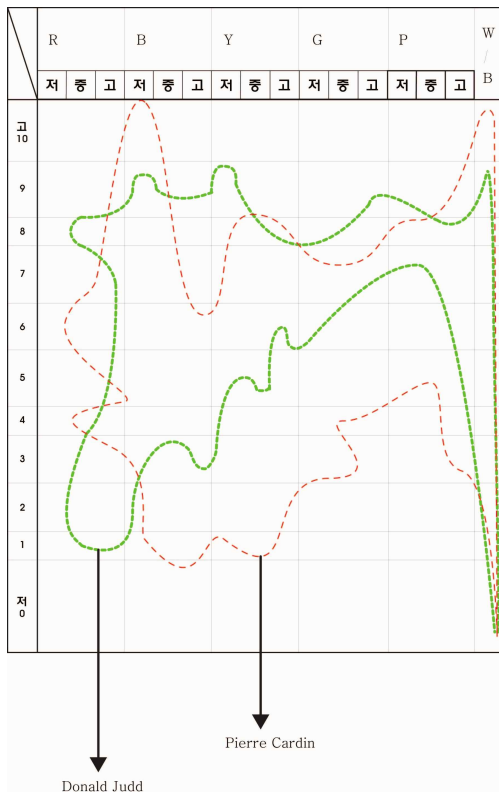
25) 박기완(2002).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와 ebony, wren과 beige과 같은 톤온톤 색 배색이나 서로 다른 색의 배합의 경우 mandarin orange와 jadeite, remon chrome과 bright lime green을 배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피에르 카르탱의 경우 golden poppy와 jet black, classic blue와 jet black, orange와 jet black, bright rose와 jet black을 사용하여 강한 색 대비의 효과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작가 모두 작품에 사용되는 색의 배합에 있어 3가지 이상의 색의 배합을 한 작품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표 5] 도널드 저드와 피에르 카르탱의 색 사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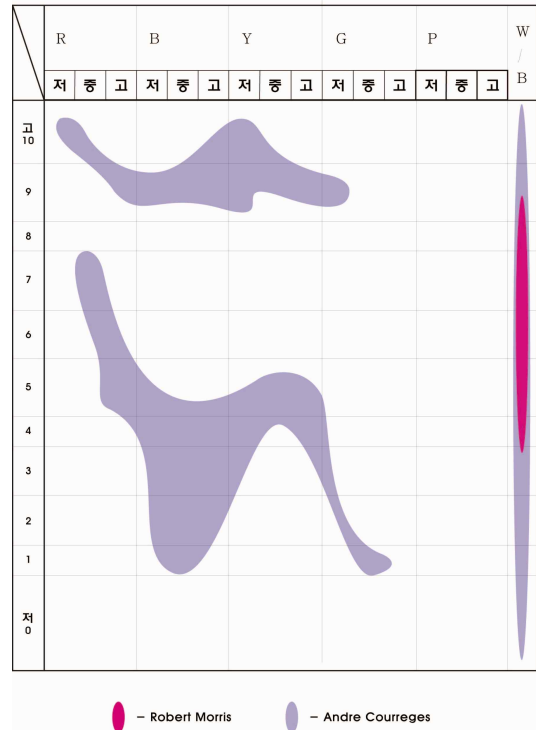


모리스의 작품에 사용된 색은 꾸레쥬의 작품에 사용된 색의 사용이 카르탱의 작품 보다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표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모리스와 꾸레쥬는 무채색 계열의 화이트(white cap, white asparagus)와 그레이(moonbeam, paloma)를 중심으로 한 색을 사용하였다<sup>31)</sup>. 꾸레쥬의 색이 모리스의 색에 비해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색이 고명도의 색으로 사용되어 모리스의 작품보다는 더 다양한 색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꾸레쥬의 작품에 사용된 지배적인 색들이 모리스의 작품과 비슷한 무채색 계열의 색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모리스와 꾸레쥬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모노톤에 가까운 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31) [표6] 연구자 작성

었다.

[표 6] 로버트모리스와 앙드레 꾸레쥬의 색 사용 비교



이처럼 당 시대의 미술사조와 패션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미술 작가와 패션 디자이너 간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작품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미니멀의 의미가 색상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작가에 따라 무채색계열의 색을 지배색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단지 무채색의 사용이 미니멀리즘의 작품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5. 결론

미니멀리즘은 형태적인 간결함에서 우리에게 복잡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 작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 단순한 형태에서 미니멀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미지화한다. 미니멀리즘에서 떠올리게 되는 백색이나 그레이는 미니멀리즘의 미술 작품과 패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색이었지만 미니멀리즘 작품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색은 미니멀리즘에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색에 비해 매우 다양함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미술과 패션에서 빈도수가 높은 색의 사용은 미술과 패션에서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미니멀리즘이 발현한 1960년대 미술과 패션에서는 원색의 레드, 블루, 옐로우의 사용이 도널드 저드와 피에르 카르맹의 작품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흰색과 그레이는 로버트 모리스와 앙드레 꾸레쥬의 작품에서 지배색으로 사용되었다. 색 배합에 사용된 색의 수는 저드와 카르맹의 작품에서 살펴보았을 때 3가지 색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다색상들 간의 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색의 배합에 있어서 1960년대 미술작가와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색상의 배색 대비와 유사한 색상의 유사대비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미술작가와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 사용된 색을 비교해보면 1960년대에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채도에 있는 색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미술작가의 작품과 패션 디자이너가 사용된 색은 특정한 색상에 대한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미니멀한 요소는 색의 사용에 있어서 색의 배합과 사용된 색의 수에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특정 단일 색을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색으로 뽑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미술작품과 패션에서 사용되는 색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으며 색의 배색에 있어서도 사용된 수에 제한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색상간의 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쇄물로 출판된 문헌을 바탕으로 작가들의 작품의 색을 추출하였으므로 실제 작품의 색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에 바탕을 둔 미술과 패션 작품을 분석하였으나 현대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받은 작품에서의 색의 사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고지한 (2000). '요하네스 잇텐의 색채론', 서울:상미사
- 박기완(2002).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부산:노라노.
- 변지연, 이순홍(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4권 제3호.
- Ann Goldstein(2004) *A Minimal Future? Art as Object 1958-1968*, Los Angeles: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 David Batchelor (정무정 역) (2003). '미니멀리즘', 서울: 열화당.
- Elisabeth Langle(2005) *Pierre Cardin fifty years of fashion and design*, New York: The Vendome Press.
-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D.Buchloh (2004). *art since 1900*. NewYork: Thames & Hudson.
- Kenneth Baker (김수기 역) (1993). '미니멀리즘', 서울: 열화당.
- Tomas Crow (조주연 역) (2007). '60년대 미술', 서울: 현실문화.
- Thomas Kellein (2002). *DONALD JUDD*, New York: Distributed Art Publishers, Inc.
-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 역) (1999),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